

강진군, '들넉경영체' 국비 15억6000만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공모사업 착한·철량영농조합법인 2곳 선정 교육·컨설팅, 사업다각화 등 추진



강진군이 들넉경영체 사업으로 국비 15억여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동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쌀 대체 작물로 생산하는 옥수수 수확 장면. <강진군 제공>

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2019년 들넉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5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강진은 서류심사, 현지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등 총 3개 분야에 2개소가 선정됐다.

강진 착한영농조합법인은 참여농가 139가구, 경영면적 262ha의 규모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사업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다각화까지 3개 분야에 모두 선정됐다.

이 법인은 조사료 유통시설과 생산장비 구축, 울벼 쌀 가공시설 건립 등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철량영농조합법인은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분야에 선정됐다. 앞으로 공동 육묘장 설치와 광역방제기 구입을 통해 공동 영농작업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들넉경영체는 쌀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작물과 이모작 생산·유통

기반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이송욱 강진군수는 "앞으로의 농업은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일반 벼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들넉경영체 공동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장흥군, 군정발전 창의적 정책제안 공모 군민·공무원 대상 15일까지 경제·관광 활성화 방안 등

장흥군이 소통 행진 강화를 위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공개 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책제안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더하고, 소통과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 분야는 경제, 관광, 복지, 인구, 행정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다.

모집 내용은 경제 분야 농림축산 및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증진, 관광 분야 국내외 장흥군 인지도 제고 및 관광문화 활성화 방안 등이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수여된다.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을 비롯해 장려상과 노력상 등 21명을 시상한다.

공모 접수는 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국민신문고, FAX(061-860-0574), 우편(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기획홍보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평가는 제안 관련 부서에서 1차 심사를 통해 채택 여부를 가리고, 군정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제안 등급을 결정한다.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우수제안을 시상하고 내년 군정 운영에 반영할 실시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군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 군민 소통의 접점이 넓어질기 바란다"며 "장흥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기갑 없이 받을 준비가 됐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



한국서부발전, 장흥풍력발전 건설 관련 '금품제공' 말썬

장흥풍력발전 반대대책위 "유치면민의 날 행사비로 줬다" 주장 서부발전 장흥사무소 소장·유치면 자치회장 형사고발하기도

10여년간 우여곡절 끝에 불허방침이 내리던 장흥풍력발전 건설과 관련해 (주)한국서부발전(장흥사무소) 측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금품 등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말썬이 되고 있다.

장흥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홍)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부발전 장흥사무소 김모소장이 유치면 이장자치회장 문모(64)씨를 통해 18개 마을이장단에게 '유치면민의 날' 행사비로 써달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금품을 받은 유치면 이장자치회장인 문모씨는 자치회 총무인 김모이장에게 다시 건네 18개 마을 이장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일부 이장들이 반발하자 3일 뒤인

10월 15일 우선 자치회기금에서 서부발전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풍력발전 반대대책위 측은 또 서부발전 측이 지난 21017년 초에도 유치면 표고버섯 작목반들의 제주도 선진지 견학때도 잔조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건네다 일부 작목반원들의 거부로 다시 되돌려 줬으며 올해 설 명절에도 부산면 심천마을 일부 주민들에게 과일박스를 주려다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와관련 풍력발전 반대대책위는 지난달 26일자로 서부발전 장흥사무소 김모소장을 뇌물공여혐의로, 금품을 받은 유치면 자치회장 문모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장흥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김선홍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장은 "한국서부발전측이 선량한 주민들을 상대로 잔조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 선심을 쓰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이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모 자치회장은 "유치면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김모소장이 열 굴쯤 보자고 해서 만나 면민의 날 행사 잔조금이라며 별다른 의미없이 받아 자치회 총무에게 전달했다"며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고, 풍력발전 협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서부발전 김모 소장은 "유치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초청장이 와서 유치면 18개 전 마을에 잔조금 명목으로 이장들에게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장흥경찰은 지난 6일 풍력발전 반대대책위 위원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따라 참고인들과 금품을 건넨 서부발전측과 유치면 자치회장 등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세대공감-음악으로 소통' 14일부터 강진아트홀서 다섯차례 걸쳐 공연

세대와 장르를 어우르는 '세대공감-음악으로 소통하다' 공연이 14일부터 나흘간 다섯 번에 걸쳐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

14일 오후 7시부터 클래식, 민요, 판소리와 영화음악을 콜라보로 즐기는 '가을밤 향수에 젖어'가 더드림서어즈 신가희 신희진이 무대에 오른다.

15일은 요란함보다 음악적 표현으로 그룹사운드의 지평을 넓힌 이지현 밴드, 16일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포크음악의 전설 동물원과 자전거탄 풍경이 공연한다.

17일 오후 3시에는 자유를 표방하는 힙합과 그 자유의 목소리로 고동떨어지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박준호, 이에찬, 이로한이 청소년들과 함께한다.

최치현 강진군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 감수성을 높여 전 세대가 음악으로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영암군, 공직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영암군은 지난 6일 군청 왕인실에서 군 산하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실시된 교육은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황현철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패와 실수가 허용되는 사회'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공직자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산림청영암국립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산림청 영암국립관리소는 관내 목재 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 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검사,

품질표시 확인 및 목재제품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6000만원)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